

# ‘미세먼지=중국發’ 입증한 서울시

서울시가 6일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천으로 중국을 공식적으로 지목했다. 환경부정권이 전날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서울시 역시 대(對)중국 압박에 힘을 실는 모양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발 초미세먼지(PM-2.5)가 서울 대기를 오염시켰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지난달 20일 서울시 대기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쓰는 석탄연료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질인 황산염이 평소의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국 원소철염류 정월대 보름인 지난달 19일 베이징 등 중국 각지에서 폭죽놀이 행사가 열린 뒤 약 20시간 후(베이징 기준) 폭죽 연소산물이 서울 대기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원소철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스트론튬(11.1배), 바륨(4.1배), 마그네

## 서울시, 대기 분석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입증

### ‘중국에 강경 대응 않는다’ 비판 인식 직접 나서

슘(4.5배) 등 폭죽 연소산물의 서울 대기 중 농도는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당시에 비해 급증했다.

스트론튬과 바륨, 마그네슘은 폭죽을 터뜨리는 데 쓰이는 착화제 성분이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스트론튬과 바륨, 마그네슘 등은 일반 대기 중에서는 농도가 높지 않다”며 “이번에 서울에서 이 물질들이 높은 농도를 기록한 것은 중국에서 발생한 게 하루이틀이 지나 이동해왔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또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울에서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던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

다.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이례적이다. 그간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분석 발표 때마다 서울시는 ‘국내 중유 연소에 따른 중금속 검출’, ‘자동차·난방 등 국내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질산염’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내요인에 방점을 찍어왔다.

서울시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평상시 55%, 고농도시 70% 이상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발생 오염물질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런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중국 쪽에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건너왔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중국 정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

다.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미세먼지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반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보는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서울시가 중앙정부를 대신해 스피커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실제로 중앙정부 역시 중국에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감안한 듯 중국정부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전날 조광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었던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과의 한중 환경장관 회담 내용을 전하며 중국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도의 해석은 우리와 다르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 주고 있다는 부분은 시인했다”며 중국정부가 한국 미세먼지 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수십억 예산투입한 제로페이 월 결제금액은 고작 ‘2억원’

서울시가 수십억원 예산을 들여 도입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이 월 2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 제로페이 결제 실적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체 결제

까지 결제금액 2억2000여만원은 서울시(38억원)와 경기부(60억원)가 올해 잡은 제로페이 홍보 예산 98억원의 5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결제를 활성화할 소비자 실익이 빠져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이용할 때 실익이 있는지, 신

신용·체크카드 승인건수의 0.00006%

홍보예산의 50분의 1...가맹점당 0.19건

건수는 8633건, 결제금액은 약 1억9949만원이다.

지난해 12월20일에 시행된 것을 감안해 12월 실적을 차치하고 지난 1월말 기준 등록가맹점수 4만6628개인 점을 감안하면 1월 한달동안 가맹점당 0.19건, 4278원이 결제된 셈이다.

1월 결제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승인건수(15억 5000건)의 0.00006%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제도시행 이후 1월

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쏟아 실적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은행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자영업자 부담을 은행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스

## 임진각~판문점 11km 모노레일 건설 추진

경기도관광사가 DMZ(비무장지대) 관광 자원화를 위한 임진각~판문점 평화 모노레일(가칭)을 추진한다.

유동규 경기도관광공사 사장은 6일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평화로 가는 길, 임진각-판문점 모노레일 달린다”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임진각과 판문점, 나아가 개성과 송악산까지 이어지는 모노레일 계획을 발표했다.

모노레일은 임진각과 판문점을 연결하는 11km 구간 건설을 1단계

로 2단계 북한 개성시까지 연결하는 14km 구간, 3단계 송악산까지 이어지는 3km 구간까지 총 3단계로 계획했다.

공사는 고양·파주시, 연천군의 직접 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화의 공원을 둘러보기 위해 숙박을 해야 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고양시 킨텍스 주변 숙박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스



## 서울 미세먼지 배출 적발차 절반 ‘SUV’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차량 중 절반 가까이가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SUV)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달 22일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을 위반한 5등급 차량을 집계한 결과 8627대로 나타났다. 단속 차종을 분석한 결과 승용·승합 SUV가 3921대로 45.5%를 차지했다. 화물차는 3837대로 44.5%였다. 기타 차량(견인차, 트랙터, 특수차종 등)은 869대로 약 10%였다.

단속차량 중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포함된 2006~2008년 등록된 차량이 5909대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주요 단속지점별로는 강일 IC, 개

화역, 양재 IC, 경인고속도로(서울 방향), 분당 수서고속도로 등 5개 지점이 2157대로 전체 단속량의 25%를 차지했다. 시 경계 지점에서 단속량이 많았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시 경계와 시내 주요 지점 51개소에 단속 폐쇄회로(CC)TV 100대를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방식으로 미세먼지 대량배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지점과 대수는 내년까지 100개 지점, 150대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시는 앞서 1월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주 23만명에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을 보냈다. 단종이인 차량, 긴급목적 차량, 국가 유공자·보훈대상자 차량, 국가 특수공용목적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스

## 서울시, 야간에도 무료 수돗물 수질검사

오는 11일부터...120번으로 신청  
탁도 등 5개 항목 검사·물맛도

서울시는 올해 약 22만 가구 가정집 등을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아리수품질확인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맞벌이 등 이유로 주간에 수질검사를 받기 어려운 가정집은 사전예약하면 야간(오후 9시까지)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수질검사 공정성을 위해 수질검사원과 업무보조원 160명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했다.

수도사업소 직원이 신청자와 방문가능 시간을 협의해 약속된 시간에 수질검사원(2명)과 함께 찾아가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직원은 검사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안내하고 상담과 홍보도 실시한다.

수질검사 항목은 ▲세균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는 잔류염소 검사 ▲수도배관의 노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철 구리 검사 ▲수돗물의 깨끗함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탁도와 수소이온농도 등이다.

수질검사를 받으려면 다산물센터(120번)나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



집(<http://anisul.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리수품질확인제를 통해 531만 7000가구를 방문해 무료 수질검사를 했다. 그 결과 급수 환경 개선이 필요한 7996가구에서 낡은 수도관 교체, 물탱크 청소, 수위 조절 등 조치를 취했다.

이창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올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년을 맞아 더욱 믿음직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정수센터에서 고도정수 처리로 깨끗하게 생산해 공급하는 마시는 물이다. 안심하고 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